
전체 주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메시지 5

아브라함의 하나님

(4)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할례받고,

하나님을 유일한 근원으로 믿고,

열국의 아버지가 됨

성경: 창15:1-6, 17:5-6, 17, 19, 21, 24, 18:14, 21:1-3, 롬4:2-5, 17

I.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창15:6, 참조 갈3:6, 롬4:2-3.

- A.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듭 나타나신 것에 대한 그의 자연스런 반응이었다.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안으로 옮겨부으신 요소가 그의 속에서 솟아난 것이었다—행7:2, 창12:1-3, 13:14-17.
- B.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를 의롭다 하신 것, 즉 그에게 의로 여기신 것이다—15:6.
 - 1.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방식으로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롬4:2-5.
 - 2.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수고)에 대한 보상(값)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3:24.
 - 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하모니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C.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죄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이는 왕국을 산출할 씨를 얻어 세상을 유업으로 이어받기 위한 것이었다—4:3, 13.
 - 1.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그의 안으로 역사해 넣으시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씨를 그에게서 산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4절.
 - 2. 로마서 4장이 가리키는 것은, 의롭다 하심이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에서 구출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8:29-30, 12:4-5, 14:17.

II.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뱀 떼는 구십구 세이었고”—창17:24.

- A.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육체를 사용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육체를 끊어버려 그의 타고난 힘을 종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은혜로 이삭을 낳으실 수 있게 하라고 분부하셨다.
- B. 아브라함이 그의 타고난 힘을 사용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에 어긋나는 심각한 위반이었다—16:1-3, 15-16.

- C.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사람이 육체의 노력으로 율법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를 상징한다—갈2:16.
- D. 할례의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 자아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골2:11, 13상, 빌3:3.
 - 1. 영적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의 육체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갈5:24, 롬 8:13.
 - 2. 할례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육체를 처리한다.
 - 2. 할례의 의미는 육체의 신뢰를 끊어버리는 것이다—빌3:3.

III.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유일한 근원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롬4:17.

- A.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일하기 위한 재료가 필요 없으시다. 그분은 다만 말씀하심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으시다—시33:9.
- B. 하나님의 목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삭의 원칙—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능력의 원칙—이다—창17:17, 19, 21.
 - 1.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약속된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상징한다—21:1-3.
 - 2. 이삭의 출생은 여호와의 오심, 즉 은혜가 온 것이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의해 태어났다—18:14, 요1:17.
 - 3.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후에 일어났다. 할례가 없이는 이삭이 있을 수 없다—창17:24, 21:1-3.
- C.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역사를 하셨다—엡4:6.
 - 1.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은 그분이 근원이시요, 유일한 개시자이시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비롯됨을 아는 것이다—마15:13.
 - 2.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하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롬11:36, 고전8:6, 엡3:14-16.
 - 3.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으나, 동시에 그분은 그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다—창17:5-6, 엡4:6.

IV.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창17:5.

- A. ‘아브람’이란 ‘높여진 아버지’를 의미하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를 의미한다.
- B.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것은 그의 존재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17:4.
 - 1.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게는 높여진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필요하다—참조 1:28, 9:1.
 - 2.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참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나’에서 그리스도로, ‘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이다—갈2:20, 고전15:10.